

충청지역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 워크숍 결과

□ 개요

- 일 시 : 2012. 6. 12(화) 14:00~6.13(수) 13:00
- 장 소 : 충북 괴산군청 별관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후 원 :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괴산군,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 참석인원 : 60여명(단장, 발제·토론자, 지자체 관계자 등)

□ 진행순서 및 내용

- 개 회 식
 - 개 회 사 : 김화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환 영 사 : 임각수 (괴산군수)
- 주제발표 : 3건
 -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왕건/국토연구원)
 - 특화발전정책 개요(장성화/지역발전위원회)
 - 농어업 6차산업화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전략(유학열/충남발전연구원)
- 특화사례 발표 : 3건
 - 갈은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산막이옛길 등), 우종진/괴산군 과장)
 - 흥성한우브랜드사업(김동우/흥성축협 지도과장)
 - 임실치즈특화발전사례(김명진/임실치즈과학연구소 계장)
- 지정토론(5명/ 지역위 1, 교수 2, 전문가 2) 및 질의 응답

□ 주요 토론내용

○ 원광희 좌장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주제발표나 사례가 해당 지자체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중심으로 토론 요청

포괄보조금 제도의 추진과 함께 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부족해지고 사업에 대한 참여 독려도 어렵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서 개선이 필요함

년 부터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도시규모의 축소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유치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

신규마을 전원마을 등 조성의 문제 농산촌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도시적 생활과 농촌지역 생활의 부조화 문제 야기하였고 이에따라 폐촌마을을 활용한 거점정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

상향식 사업의 장점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리더를 육성할 수 있음 부작용으로는 리더의 독단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야기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제 농촌계획직 등의 창설이 필요하다

○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교수

관광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음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며 和而不同으로 토론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음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이나 상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면 후발 주자 시군 들이 접근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지역위에서 추진하는 연계협력이나 상생과 특화발전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연계협력이나 상생이 필요한 시군도 있고 특화발전이 필요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축 방향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 주기 바람 특히 후발 지역 시군 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관광협회 등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이나 실천할 역량·계획이 없어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것은 기획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오석 영동대학교 교수

영동 지역은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이 없고 문화자원으로서 국악 박연이 있어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으나 한계 봉착

년까지 포도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와인코리아에서 연매출 억원의 소득을 창출했고 현재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개 농가에서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중으로 이중 연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개 이고 한 농가에서는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유턴하여 와인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년 뒤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연계하여 이들의 노후대비에 대한 방안으로 귀농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은퇴 후 귀촌 귀농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귀촌 귀농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전문적인 귀농귀촌보다는 고향이나 지인들이 있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특화의 의미는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것임 즉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서 경쟁을 피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예 절임배추 치즈

지역발전에 있어서 특화사업의 육성은 주류가 될 수 없음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쟁이 없는 독자적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며 특화되지 못하는 일반 사업들은 결국 가격으로 경쟁해야 함

그러나 특화사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자 전국적으로 길 조성이 유행하게 됨 여기서 경쟁에 이기려면 결국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함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필요함 지역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음

년대부터는 정부의 지침에서 기획과 혁신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제대로 적응한 자치단체는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화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자발성 임 즉 실제 주체인 민간 주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 신활력사업 등 기존의 특화발전 관련 사업들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에서 자발적인 기획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품을 조성했으나 최근의 정책 포괄보조금 은 이런 기품을 찾아볼 수 없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고민해주기 바람

○ **신광호** 성장기반과장

특화사업의 개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다른지역과 차별화 되면서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기준에 신활력사업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에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신활력사업 등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성을 가진 사업들은 성공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실패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신활력사업 등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투자나 노력이 사라지면서 사업 자체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지역위의 특화발전 활성화 추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특화발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임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임

영국 셰필드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철강 중심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도시로 소개되고 있음 그 이유는 사업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과 창조적인 발상 문화적 요소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음

특화발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브랜드임 기존에 지자체에서 브랜드 육성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그 원인은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특화발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겠음

○ 단장님 마무리 말씀

워크숍 개최에 협조해 주신 괴산군 및 충청권 광역위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막이 옛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쁨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상생발전 특화발전의 두가지 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함 특화발전을 비롯한 모든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의 자발성이며 중앙정부는 여기에 약간의 지원을 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임

기초지자체의 특화발전에 관련된 현행 정책 구조는 자발성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며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 제도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설명 : 당초의 취지, 개별사업체계 환원, 사업별 지침, 부처별 자체 평가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제도 개편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자발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력하겠음



▣ 워크숍 개회 (사회자: 충청광역위 홍은아 팀장)



▣ 특화발전정책 개요 발표(장성화 연구관)



▣ 홍성 특화발전사례 발표(홍성축협 김동우 과장)



▣ 발표내용 경청



지정토론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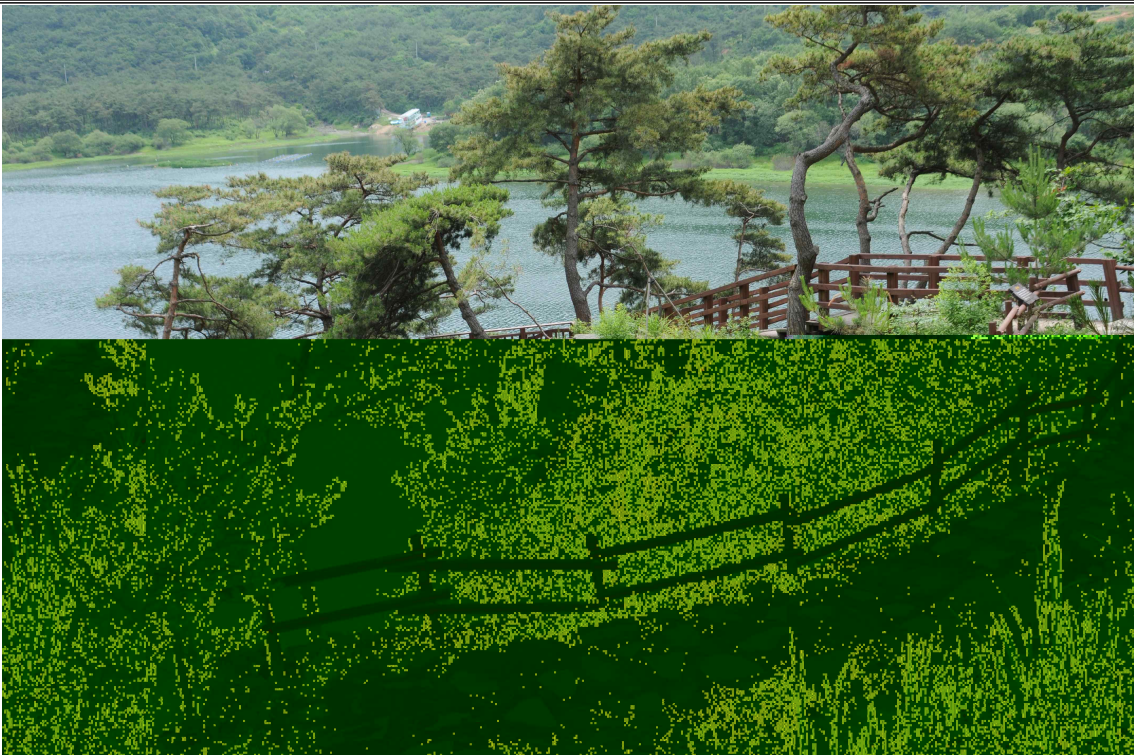
▣ 특화 우수사업 현장(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시설 내부 시찰



▣ 특화 우수사업 현장(괴산 산막이 옛길)



▣ 특화 우수사업 현장(괴산 산막이 옛길) _ 수려한 경관